

5/13(금) 에스라 5-7장 길을 내시는 하나님

페르시아는 넓은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길 원했습니다.

각 지역에 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공동체 건립을 추진하며
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(1:2-4).

이러한 공동체 재건의 주도권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습니다.

분쟁이나 반란의 여지가 있으면 무엇이든 무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.

귀환 공동체의 재건을 중단시키려던 대적들은 효과적인 사유를 찾아냈습니다.

<반역 및 제국 운영의 손실 우려>이었습니다(4:13,15-16, 19-20).

성전/성벽 재건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(4:23-24, 5:1-6).

장로들은 이에 대해 공동체를 변호해야 했습니다.

하나님은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장로들을 도우셨습니다(5:5).

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만한 용어를 신중히 선택하여

포로기와 귀환, 성전 건축에 담긴 입장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(5:11-16).

그들의 대답에는 지난 역사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가 담겼습니다.

포로기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.

위기는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.

왕은 본래 칙령에 있던 <왕실 재정 후원>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(6:4).

성전 건축과 제사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며(6:8-9),

이를 변조, 방해하는 이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(6:11-12).

닷드네 등은 왕의 명령을 신속히 준행했습니다(6:13).

출애굽 행렬처럼 귀환했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(6:14-15),

유월절의 구원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를 준수합니다(6:19).

하나님을 찾는 귀환인과 본토인이 함께 먹고 즐거워했습니다(6:21-22).

쉽지 않은 회복의 길,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.

출애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거듭났듯이(출19:5-6)

새로운 공동체도 하나님의 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.

이 일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가 돌아옵니다(7장).

나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까?

❶ 나는 선불리 판단하거나, 선불리 위로하지 않습니까?

❷ 나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에스라 5-7장